

3:0→3:3→4:3 '닥공 축구'...광주FC 막판에 웃었다

대구 원정경기 화끈한 골 폭죽...광주FC 2020년에도 6-4로 이겨 3골 앞서다 후반 3연속 실점 위기 속 상승운 귀중한 결승골 '승리'

다시 한번 '달구벌 대첩'이 펼쳐졌고, 이번에도 광주FC가 웃었다.

광주는 지난 16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K리그1 2023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3골을 연달아 넣은 광주가 후반 연속 3실점 했지만 후반 41분 터진 하승운의 시즌 첫 골로 극적인 승리를 완성했다.

이 승리로 DGB대구은행파크는 광주에 확실한 '약속의 땅'이 됐다. 광주는 2020시즌 첫 방문 이후 4전 전승을 이었다.

10골이 터졌던 2020년 8월 30일 경기를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달구벌 대첩'이기도 했다.

2020년 두 팀은 10골을 합작하는 '불쇼'를 펼쳤고 승자는 6골을 넣은 광주였다. 지난 시즌 우승으로 승격에 성공하며 다시 대구를 찾은 광주는 7골이 폭발한 이번 경기에서도 4-3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 18분 '이적생' 김한길의 티모가 길게 올려준 공을 받아 논스톱 슈팅으로 새 팀에서의 첫 골을 선제골로 장식했다.

전반 중반에는 이희군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몇 차례 대구 골대를 공략했지만 골대 분운 등에 올랐다. 하지만 전반 43분 두현석의 패스를 받은 산드로가 오른쪽으로 골대를 갈랐다. 산드로의 2023시즌 마술같이 골로 2-0으로 전반전을 마감한 광주.

그리고 후반 14분 광주 허율도 첫 골을 신고했다. 오른쪽에서 두현석이 크로스를 올렸고, 허율이 몸을 날려 헤더를 시도했다. 이내 골망이 흔들리면서 두현석은 시즌 2호 도움에 이어 3호 도움까지 연달아 기록했다.

허율의 골이 췌기골이 되는 것 같았지만 승리가

지 큰 위기가 있었다.

부지런히 광주 골대를 노렸던 고재현이 후반 18분과 33분 연달아 오른쪽으로 광주 골대를 갈랐다. 1점 차의 박빙의 승부가 전개되던 후반 16분에는 케이트가 광주를 올렸다. 에드가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왔지만, 공을 잡은 케이트가 왼발로 차넣어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3연속 득점 뒤 3연속 실점으로 광주가 위기에 몰렸지만 하승운이 '해결사'가 됐다.

중원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오른쪽에서 산드로가 잡았다. 산드로가 반대편으로 공을 보냈고, 하승운이 달려들어 그대로 오른쪽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했다.

다시 리드를 잡은 광주는 막판 공세를 이어갔고,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실점 없이 남은 시간을 버티면서 4-3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첫골을 신고한 하승운은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이정호 감독은 "경기장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좋은 경기로 보답한 것 같다. 양팀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름다웠다"며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양 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또 "우리 팀은 후반에 실점하면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징크스가 생기면 강팀으로 가는 데 발목 잡힌다.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며 승리에 대해 광주에 속세를 언급했다.

앞선 포항 원정에서 0-2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 2-1 승리에 이어 대구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더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하승운이 지난 16일 대구FC와의 K리그1 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41분 결승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FA 빅3' 박정아, AI페퍼스 유니폼 입었다

연간 총액 7억7500만원·3년 계약 김연경과 똑같은 초특급 대우 채선아 영입, 이한비·오지영 재계약

FA(자유 계약)시장에서 김연경, 배유나와 더불어 '빅3'로 분류된 '클러치 박' (박정아)이 광주 AI페퍼스 유니폼을 입었다.

광주 AI페퍼스 배구단(구단주 장매투)은 17일 "리그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박정아(30) 선수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기간 3년, 연봉과 옵션을 포함한 연간 총 보수는 7억 7500만원(연봉 4억 7500만원, 옵션 3억원)이다. 지난 16일 흥국생명과의 계약한 김연경 역시 이 금액으로 1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김연경은 단년 계약이고, 박정아는 3년 계약으로 총액 기준 역대 여자배구 FA 최고액인 23억2500만원을 받게 됐다.

IBK기업은행에서만 세 차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맞본 박정아는 2016-2017시즌이 끝난 뒤 FA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 이적했고, 그곳에서도 2017-2018시즌과 2022-2023시즌 두 차례 우승을 견인했다.

2022-2023시즌 챔피언결정전은 흥국생명에 먼저 두 판을 내주고 내리 세 판을 잡은 역전 우승의 주역으로 특별히 활약했다.

박정아는 "배구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AI페퍼스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페퍼스가 박정아·채선아를 영입하고 이한비·오지영과 재계약을 하며 총 4명과 FA 계약을 완료했다.

페퍼스는 KGC인삼공사의 아웃사이드 히터 채선아(31)와도 연간 1억(연봉 9000만원, 옵션 1000만원)에 3년, 총 3억원 규모 계약으로 영입했다.

채선아는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AI페퍼스 구단에 감사하다"며 "오프 시즌에 준비를 잘 해서 스스로 더 발전하고 팀의 성장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현 김 AI 페퍼스 감독은 "박정아가 우리 팀에서 매우 중요한 키맨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팀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지영과 이한비의 잔류도 팀의 미래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선아가 합류해 베테랑으로서 리더십을 더하고 팀의 볼 컨트롤 능력을 강화 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대학교와 전라남도체육회 간 업무협약

일시: 2023. 4. 13.(목) 11:30 장소: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송하철(왼쪽) 총장과 송진호 전라남도 체육회장'

목포대·전남도체육회 대학운동부 육성 협약

평생학습 지원도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와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오른쪽)가 최근 목포대 총장실에서 대학운동부 육성 및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서 목포대는 지역 스포츠 산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체육회는 대학 운동부 육성을 통해 지역 체육이 발전하는데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양 기관은 또 은퇴선수, 직장선수, 지도자와 생활체육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전문능

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하철 총장은 "최근 학교의 체육 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전남도체육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진호 회장은 "지역 스포츠 관광산업, 지역 스포츠 발전에 국립목포대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대에서는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제61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존 워 4
- 2관 킬링 로맨스
- 3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소울메이트,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4관 존 워 4
- 5관 존 워 4, 나는 여기에 있다, 오토라는 남자
- 6관 스페의 문단속, 나는 여기에 있다, 에어
- 9관 스페의 문단속, 거울 속 외딴 성
- 7관 씨네키움, 킬링 로맨스
- 8관 씨네키움, 리바운드, 물안에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